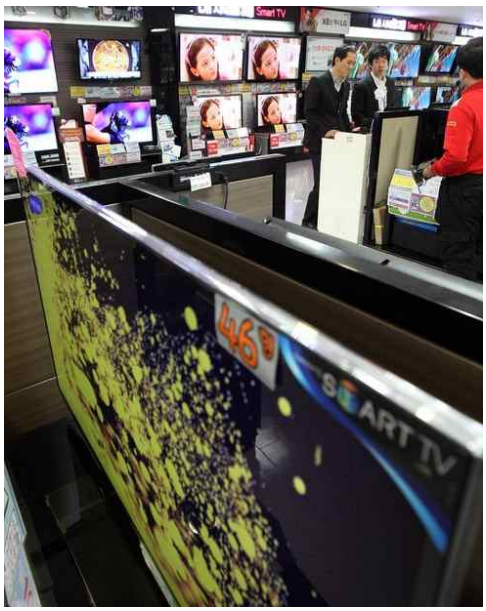
팍스콘, 저가 LCD TV로 시장공략

10월 저가제품 출시로 가격경쟁 촉발 … 삼성·LG 시장점유율 위협

전자기업 팍스콘(Foxconn)이 10월 저가의 60인치 LCD TV를 출시한다.



해당제품은 타이완과 중국에서 먼저 선보일 예정이라고 중앙통신사(CNA)가 10월4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미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양산은 2013년 초 본격화한다.

팍스콘은 협력기업인 샤프(Sharp)의 일본 오사카(Osaka) 공장에서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 부품을 공급받는다.

전문가들은 팍스콘이 저가의 60인치 LCD TV를 출시하면 시장가격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팍스콘은 60인치 TV의 미주 수출가격을 999달러(약 110만원)대로 검토하고 있으며, 타이완 판매가격은 1300달러(약 14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타사제품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파격적인 가격대로 다른 생산기업들도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시장점유율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언론은 예상했다.

한편, 팍스콘과 샤프(Sharp)는 TV 외에 스마트폰 신규모델 등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05>